

학교 운영이 최고·최선의 포교

종립학교 세지중학교 이사장 원 일 스님... 승마·염색체험 등 문화체험 실시



“다문화 자녀를 위한 특성화 학교를 통해 보다 전문화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나주 시내에서도 한참 떨어진 세지면에는 종립학교법인 세지중학교가 있다. 세지중학교 이사장 원일 스님(나주 미륵사 주지·사진)은 세

지중학교에서 수년 전부터 특성화 교육을 실시해 나주지역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원일 스님은 불교적 특성을 내세우기 보다는 원어민을 교사로 초청해 영어회화와 방과 후 교육을 해왔다. 또, 지역 향교의 지원으로 다도와 예절교육도 실시했다. 이 외에도 지역 명사 초청 특강, 1인 1악기를 다루는 예능 교육, 아영수련, 승마, 염색체험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시행했다.

그 결과, 세지중학교는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2010년 ‘농산어촌 전문학교’로 지정돼 도시 학교에 뒤쳐지지 않는 시설 투자 및 프로그램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불교계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최고의 포교인 것 같습니다. 매년 수 백 명의 학생, 학부모들과 만날 수 있고, 불교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요.”

원일 스님이 학교운영을 하게 된 것은 은사 벽상 스님(전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의 교육불사 원력에서 비롯됐다. 벽상 스님은 2002년 열반할 때까지 교육·장학사업의 뜻을 놓지 않았다. 원일 스님은 2006년부터 학교를 운영하면서 은사스님의 유지를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있다.

최근 세지중학교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특성화 학교를 준비 중이다.

원일 스님은 사회적 소외계층 중 하나인 다문화가정의 교육문제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우선의 불교적 실천이라고 생각했다.

교육청 자료가 따르면, 현재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또래 아이들에 비해 언어능력과 학습능력이 뒤쳐져 있다. 특히 교육열이 높은 한국

사회의 특징을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이 아직 따라가지 못했더라도 외국에서 온 부모님의 언어 능력으로 자녀의 학습 능력 또한 떨어진다.

이를 위해 원일 스님은 세지중학교에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을 위한 전문교사를 채용하고, 가정에서 충만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스님의 사회적 자비실천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스님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도 관심이 높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백양실버타운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곳이다. 노인성 질환 장기요양등급 어르신 43명이 기거하는 백양실버타운에는 웃음치료, 실버치료, 미술치료, 생신잔치, 발마사지 봉사, 목욕봉사 등이 지역 불교단체에서 자원봉사들의

도움으로 이뤄지고 있다.

“나주지역은 노인도 많지만 요양 시설도 많습니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종교인들이 반드시 해야되는 일이고, 불교적으로는 평등사상을 실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사회는 종교가 문을 열고 소통을 하며,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한 사회야말로 부처님의 법이 실현되는 사회이지요.”

스님의 복지사업의 방향은 명확하다. 재가불자를 위한 요양시설과 스님들의 노후를 위한 요양시설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1만여 명의 대지를 구입해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나주가 그 옛날 호남의 큰 도시에서 작은 도시로 축소됐지만, 불교의 자비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바로 원일 스님과 같은 실천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제5대회장 본 목 스님

담양불교사암연합회 취임

“지역주민들에게 나눔과 자비를 실천하는 단체로 만들어가겠다.”

담양불교사암연합회 제5대 회장으로 호국사 주지 본목 스님이 취임했다.

담양불교사암연합회는 3월 12일 담양군민회관에서 300여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제5대 회장 이·취임식 및 담양군민 화합을 위한 대법회가 봉행됐다.

이날 회장으로 취임한 본목 스님은 향후 연합회 운영과 관련해 “매월 지역의 노인정과 마을회관

에 떡국과 국수 등을 전달할 것이며, 가을에는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5대 임원진으로는 부회장 상원 스님(연화사), 정각 스님(비전사), 총무부장 정각 스님(마하무량사), 재무부장 정보 스님(전불선원), 홍보 진덕 스님(하심사) 등이 임명됐다. 또한 신도회장에는 송진현 회장이 연임해 취임했다.

한편 이날 취임법에 앞서 담양 불교사암연합회와 신도회는 자비의 쌀 100포를 담양군에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담양불교사암연합회는 3월 12일 제5대 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전주 신흥고, 순종서약서 관행 시정 약속

전북교육청, 신흥고에 종교편향교육 시정 지도

올해 신입생들로부터 특정종교 프로그램의 순종서약서를 받아 불의를 일으킨(복지 제824호 2월 23일자 보도) 전주 신흥고등학교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교과부와 교육청 지침을 따르지 않고 강제적으

로 종교편향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시정도록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신흥고를 파악한 결과 학교 측이 다소 관행적으로 신입생에게 학교의 정체성과 학생 본분을 잊지 않도록 서약서를 받아왔지만, 앞으로 학생 본인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종교교육을 받도록 하는 교육과정 프로그

램을 운영하겠다고 학교 측이 밝혔다고 전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종교교육을 하는 관내 중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서약서 또는 종교과목을 개설할 때는 반드시 복수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불교신도회 직할 청년회 출범

빛고을 청년불교의 불교 중흥 출발이 시작됐다.

광주전남불교신도회(회장 지용현)는 지난 11일 무각사(주지 정학) 대웅전에서 신도회 직할 청년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행사장에는 법회 1시간 전부터 100여 사부대중이 모일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법회에서는 주권기 범우의 인사말과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현지 스님의 격려사, 지

용현 회장의 환영사, 정학 스님의 축사가 이어졌다. 범우식에 이어 축하공연에는 통기타 ‘소리샘 사람들’의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이날 청년회 회장에는 광주생명나눔의 주권기 홍보이사가 임명됐다.

주권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법회에 많은 회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범우 추백일장과 다문화 음악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불교청년회는 광주지역 불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기관임에도 현재 원가사, 한마음선원 광주지회만 활동 중이다.

이날 참여한 광주지역 불교단체장들은 “각 사찰별로 청년회가 다시 복원되어 청년불자들의 합찬 활동을 보고싶다”며 “이번 신도회 직할 청년회 결성이 좋은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역 뉴스

전북불교회관, 출가열반절 특별정진법회

전북불교회관 보현사(주지 일원)는 출가에서 열반까지 특별 정진 기간을 맞아 3월 12-19일 4층 큰 법당에서 특별정진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특별 정진법회는 7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해 출가와 열반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행사는 매일 팔상성도를 중심으로 한 부처님의 생애를 돌아보고 나를 깨치는 108배, 신묘장구대다라니 봉독, 참선 등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전법활동을 펼치자 열반한 부처님의 큰 뜻을 새기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법륜범음불교대학, 호남지역 범음교육 시작

광주 법륜사 법륜범음불교대학(학장 월인, 법륜사 주지)이 3월 10일 첫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교한 범음불교대학은 범음법계(상주권공) 2년 과정으로, 기초과정인 목탁 잡고 치는법을 비롯해 예불, 불공, 시식, 상주권공을 비롯해 천도의식 본과정과 상주권공, 작법, 시연회, 작법고급과정 등의 과정을 교육한다. 강주에는 상진 스님(안정불교대학 법과과 강주)이 맡았다.

법륜범음불교대학은 3월 10일 개강으로 매주 목, 금요일 4시간씩 2년간 진행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해동불교 임제종, 지역 노인위안 잔치

해동불교 임제종(종정 지암)은 창종 4주년을 기념해 3월 6일 여수 롯데웨딩홀에서 인근지역 세구지 마을 주민 초청 잔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대한불교불교종 총무원장 화담 스님, 대한불교위양종 종정 위산 스님,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보현 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지암 스님은 매일 쌀 20kg을 복지관과 노인정 20여 곳에 지원, 고려대학교(옛 광주소년원)에서 조손가정 아이들과 어머니회의 결연을 통한 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음악원, 불교전문성악음악원 개원

불교음악원(원장 박준홍)은 3월 12일 대구 남구 명장사에서 불교전문성악음악원인 'E&I Ensemble'를 개원했다.

이날 개원법회에는 불교음악 작곡가인 강주현 선생을 비롯해 영남지역 각사찰 합창단장과 임원진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무시 'E&I Ensemble' 초대회장은 “불교음악은 그동안 시대적 변화에 맞추지 못해 불자들에게조차 외면당하고 있었다”며 “불교 포교를 위해서는 새로운 찬불가의 창작과 더불어 체계적인 불교음악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포교사단, 직지사서 11주년 기념법회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임희웅)은 3월 12일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서 출범 1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기념법회에는 포교사단 총재 혜종 스님(조계종 포교위원장)과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을 비롯해 포교사 및 16기 예비포교사 등 1000여 명이 참가해 헌신적인 포교활동으로 한국불교 역사를 새롭게 쓰자고 결의했다. 임희웅 단장은 “모든 조직을 행정구역단위로 개편해 10년 뒤 전국 각 시군구마다 포교센터를 구성해 포교 영역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LEADER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초빙 안내

총장, 명예 교수 겸 운영이사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시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임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불제자를 모시고 싶습니다. 재물 보시도 중요하지만, 가진 것 없이도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 또한 값진 보시이며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적 봉사입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니다! 무엇을 망설일니까?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우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제자들이 됩시다.

미얀마 양곤 신도시 나인따야에 위치한 5만평 대지

코리아 기술 종합 대학교

2010년 12월 12일 신축 공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학교 관리자는 미얀마 종교성 장관이 자동으로 선임되고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에서 운영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후진국 빈곤 청소년들에게 살아가는 삶 자체를 바꾸어 주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중생의 지팡이가 되시고자 하시는 참다운 불자, 숨은 봉사자를 찾습니다.

자 격 : 부처님의 제자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

1년에 1주일이상 학교에 머물며 학교 건축 및 운영 전반에 직접 참여할 모든 종단 및 남녀불문하고 스님 및 재가자를 모시고자 하며, 총장 선임자는 교육계 정년 퇴임자 중 헌신 봉사할 불자를 찾습니다.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외교법인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이 사 장 목탁 혜은 합장
대표 전화 02)733-5665, 011-229-6061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외교법인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회 장 목탁 혜은
부 회 장 금당 법성

포교원장 불도 천장 교육원장 현담 승광 감찰원장 일해 공심
전화 02)730-5670
국민은행 023-501-04-147581